

축 사

산천은 형형색색의 자태를 뽐내고 하늘도 드높은 가을! 조계산 선암사도 산사의 자태를 한껏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불교관음종 개산조인 태허당 홍선 대법사의 탐비와 부도가 제막되기에 자연과 도량, 그리고 우리의 수행정진이 한층 조화롭습니다.

태허스님은 1932년 경운 월기선사를 은사로 득도하시고 수행정진 했던 스님이십니다. 태허스님의 은사인 경운 스님께서는 선암사의 대강백으로 조선불교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이러한 큰스님을 은사로 공부했던 태허스님은 일제의 폭압,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중들을 위하여 파고다공원에서 거리설법을 하시며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라디오 서울을 통하여 신앙강좌를 펼치셨던 어른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곧게 실천해 나가셨던 태허스님의 탐비와 부도를 이곳 선암사에 봉안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조사 선양 사업에 열의를 보여준 문도 그리고 종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태허 문도회 스님 그리고 관음종을 개산조를 바르게 모시고 그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는 문도와 종도가 화합을 이루지 못하면 이를 수 없는 큰 불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합의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불사를 주도하신 태허 문도회 회장이시고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이신 홍파스님께 경의를 마음을 전합니다.

모쪼록 오늘 태허스님의 탐비와 부도가 원만하게 모셔져, 대대손손 문도와 종도들이 태허 대법사의 정신을 올곧게 이어나가나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불교가 발전하고, 불국토를 이루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태허 대법사 탐비 부도 봉안을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그리고 대중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불기2558(2014)년 11월 1일 (음 윤9.9)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